



학교는 작년까지 5, 6학년 학생들만이 통합교육에 참여했기에 일대 일 매칭이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전교생이 함께 하는 활동이기에 모둠을 편성하였다.

혜화학교 친구들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50여명의 모든 천서초등학교 친구들이 마중을 나갔다.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예년보다 많았기에 서로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미래의 기동인 아이들에게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 같은 모둠에 편성된 친구들을 큰소리로 부르며 찾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십년지기 친구의 해후를 연상시킨다.

늘 처음과 같은 만남의 시작

과학체험부스는 학년 군별 활동과 전체 활동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두 시간 남짓 주어진 시간이지만 천서와 혜화 친구들은 정신없이 과학 원리를 배우고 활동에 빠져든다. 문명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자라는 시골학교의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 그러기에 더욱 열심이다. 몰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정신없는 와중에도 옅은 미소가 생긴다. 열심히 준비한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교사로서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그 와중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아이들의 모습에 이미 경계는 허물어졌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혜화학교 친구의 설명을 들으

며 깨우쳐가는 학생의 표정은 말로만 듣던 '장애인은 부족한 존재이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한 모습이다.

어느 덧 흘러가버린 시간을 뒤로한 채 이별을 준비하러 다시 밖으로 나왔다. 벌써부터 "친구야! 잘 지내고, 우리 또 보자."는 인사를 주고받는 아이들의 대화가 끊이질 않는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2학기 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떠나는 버스에 탑승한 혜화학교 친구들과 손을 흔들어본다.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작은 울림

혜화 친구들을 보낸 후, 천서의 꿈둥이들은 오늘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우리가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음을 다시 깨닫는다.

"또 만나고 싶어요." - 1학년 박00

"같이 피젯스피너를 만들어보니 친해졌어요." - 4학년 주00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야기를 해보니 나와 비슷한 생각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 6학년 김00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혜화 친구들에게도 이런 추억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65명의 아이들은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을 느꼈다. 이는 아이들이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에 더없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 오늘 아이들이 느꼈던 작은 울림들이 세상에 있는 편견을 깨트려나가는 큰 울림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글 김대수 천서초등학교 교사

